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과 공간에 대한 재고

이나영*

올 봄, ‘세월호’ 사건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를 통해 그간 한국 사회의 중층적 모순들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굴복한 채 지배계급의 유지와 보호에 몰두하는 정부, 대기업과 결탁하여 사욕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관료들, 돈벌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공성과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쳐둔 채 오로지 성장과 이윤추구만을 지향하며 달려온 한국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사회학회의 이번 호 특집 주제, “공간과 공공성”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기획된 것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공공성이 제거되고 시장화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위기와 위험은 오롯이 개인, 약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된다.

급변하는 한국사회 속에서 『문화와사회』는 이번 16권을 계기로 새로

* 편집위원장,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nylee@cau.ac.kr

은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다. 첫째, 『문화와사회』는 사회학을 거점으로 하되 학문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문화적 상상력이 소통될 수 있는 학술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SCOPUS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학문의 지구화, 자본에의 종속화라는 국내외적 압력에 수동적으로 굴복하기 보다는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술지의 기본 정신과 골격은 한국적 맥락에 뿌리를 두되, 소통의 방식은 보다 유연하게 하는 틀거리를 갖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외 편집위원을 대폭 확충했다. 이미 『문화와사회』에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10명의 국내 편집위원과 함께 국외 편집위원 2명(미국, 홍콩)이 활동해 왔다. 올해는 미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중국, 대만 지역의 국외 편집진을 10여명으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미 프랑스의 마페졸리 교수를 비롯한 6명의 해외 학자들이 편집위원을 수락한 상태다. 더불어 학회의 영문명칭 변경에 발맞추어 학회지의 영문명을 변경하였다. 바뀐 학회명(*The 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Sociology*)에 맞게 학회지명도 *Culture & Sociology*에서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로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원고 투고에 열려 있으며, 2000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한 New Romanization System을 도입하여 한글 참고문헌의 국영문 혼용표기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영문 작성 시, 인문사회과학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6th Edition*의 author-date system 양식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영문원고 투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외 많은 문화사회학자들의 학술적 관심을 포섭할 수 있는 열린 틀을 갖추고자 한다.

둘째, 특집의 구성이다. 이번 권부터는 편집위원 중 한 사람이 권 단위로 특집 주제를 구상하고 관련 논문의 편집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했다. 특집의 주제는 한국문화사회학회 정기 학술대회의 주제와 연관성

을 지니되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시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심보선 편집위원이 특집호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김종영 편집위원이 수고해 주시기로 약속했다.

이번 『문화와사회』 제16권의 특집 주제는 앞서 언급했듯 “공간과 공공성”이다. 그간 사회학에서 물질성을 지닌 공간은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배경으로만 여겨졌고 공간이 인간에 미치는 구체성과 물질성을 소홀히 해왔다. 이에 이번 호는 공간과 인간의 삶의 상호작용을 ‘공공성’이라는 관점으로 탐구하여 사회학의 ‘공간적 전환’을 촉구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날로 상실되어 가는 공간의 공공성 문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들을 구체적인 인간적 삶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주제에 맞는 원고 모집을 위해 이미 지난 2월 특집 주제 관련 원고 모집을 학회를 통해 공지한 바 있으며, 최근의 시국과 연관되어서인지 학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집에 실린 세 편의 글 중 먼저 전상인의 글은 공간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면서 기계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장소로서의 공간을 복원하고 창조할 것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 전상인은 우리나라의 공간담론과 공간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공간과 행복에 관련된 인문사회학 분야와 기술공학 영역간의 보다 실질적인 협업과 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김무경은 건축가 정기용의 작품을 중심으로 건축에서의 ‘공공성’이 왜 중요한 시대적 사안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실린 심보선의 글은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자전거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의 예를 들어 새로운 공간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무수한 실패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자신들이 속한 결사를

유익하고, 즐겁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결사로 구성해감을 밝히고 있다.

이번 호 일반 논문으로는 모두 세 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먼저 박근영의 글은 문화적 잡식성을 중심으로 2000년대 한국 영화관객들의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계층이나 나이, 교육수준에 따라 실제 소비 행위가 취향이나 선호의 차원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민가영의 글은 근로빈곤층 청소년의 경험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인화의 효과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그는 자기 의존적으로 개인에게만 집중해서 성취를 이루어 가는 사회에서는 결국 광범위한 사람들의 삶이 하향평준화 되면서 새로운 불안정성 속에 공통적으로 놓이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다음으로 김주환의 글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의 구조를 해명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진보의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담론에 포획된 채, 의도하지 않게 그것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담론 외적인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한 편의 논문과 같은 서평 원고가 준비되었다. 정수복은 사회학이 직면한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노명우의 『세상물정의 사회학』이 사회학적 통찰력에 기반하되 보통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그는 사회학의 영향력이 날로 축소되어 가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사회학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시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이상의 글들은 독자들에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문화사회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은 또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